

# 합의문 해석에 삐걱대는 연동형 비례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합의문에 서명을 한 지 이틀도 안 돼 거대 양당이 문구 해석을 놓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야3당은 지난 15일 여야 5당의 선거제 개혁 관련 합의문 도출 덕분에 열흘째 진행 중이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단식농성을 멈출 수 있었다. 하지만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합의문 1항에 대한 해석 차이를 보이는 등 우려스러운 상황을 맞았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7일 비상대책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합의문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여러 선거구제에 대해 앞으로 적극적으로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검토의 합의에 불과하다고 여겼"을 밝혔다.

## 민주·한국, 합의문 1항 해석 놓고 엇갈려

### 바른미래·평화·정의당 등 야3당 '난처'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역시 같은 날 "국회 논의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동의한 선거제 개편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론적 수준의 발언에 그쳤다.

합의문 문구를 놓고 벌어지는 거대 양당의 상반된 시각차가 야3당의 입장을 난처한 상황으로 몰고 있는 것이다.

우선 평화당의 경우 국회의사당 계단 앞에 설치한 천막당사는 철거하기로 했다. 손학규·이정미 대표가 단식하던 중 정동영 대표가 이끌 어온 장외 대국민 캠페인을 이어갈지 여부까지, 항방을 정해야 한다.

평화당은 지난 18일 오후 2시부터 1시간여에 걸쳐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시민사회단체 연대인 정치개혁공동행동 이승수

공동대표와 녹색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동영 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참석해 논의 결과를 정리했다.

큰 틀에서의 결과만 놓고 본다면 이들은 앞으로도 소통하며 연대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평화당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논의 등 국회 내 협상에 주력키로 했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때까지 진행했던 캠페인 등 행보를 전국 단위로 넓히고, 내년 1월부터는 보다 집중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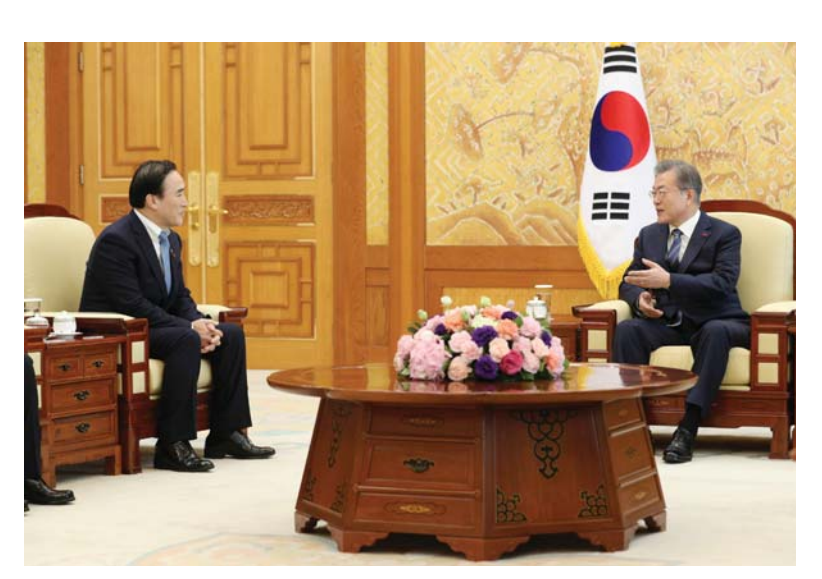
현재 선거제 개혁 공동운동 종합상황실로 운영 중인 평화당 천막당사의 철거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 방화교과에 따르면 평화당

은 18일 천막당사를 철거할 것으로 전했으나 철거하지 않았다.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철거 여부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의 경우 심상정 의원이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정개특위에서의 논의에 방점을 찍고 있다. 다만 심 위원장이 밝혔던 대로 정개특위에서의 논의와 각 당 대표들 간 합의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앞세우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이라는 점과 지역구 선출방식(소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등)에 대한 결정, 의원정수 확대 여부 등에 대한 당 대표들의 협의가 진행되면 정개특위에서의 논의가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고 해석 대변인은 설명했다.

야3당 중 유일하게 민주당, 한국당과 함께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은 정개특위 차원의 논의와 함께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에 집중하면서 평화당, 정의당과 공조해나간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김종양 인터폴 총재를 접견하고 있다. 김 총재는 지난달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제87차 인터폴 총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새 총재로 선출됐다.

## 文대통령, 김종양 인터폴 총재 접견

### "대한민국의 큰 자랑"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김종양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총재를 만나 "우리 대한민국의 큰 자랑"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김 총재를 만나 "상당히 압도적인 표 차이로 (총재에) 당선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재는 지난달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제87차 인터폴 총회에서 러시아 출신 알렉산더 프로코프추크 유럽 부총재를 제치고 한국인 최초 새 총재로 선출됐다.

문 대통령은 "인터폴은 가입 회원국이 194개국으로 알고 있는데 가입회원국 수로 따지면 유엔(UN)보다 세계 최대 국제기구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요즘 국제적인 범죄와 국제 테러 등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 인터폴에 대한 국가 간의 협력을 강화해 국제문제, 테러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그를 통해 인터폴 위상을 더욱 높여가는 역할을 총재께서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인터폴과의 협력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재는 "대한민국 경찰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위상을 높여야겠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경찰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접견자리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윤건영 국정기획수석, 조한기 제1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배석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총재가 한국인 최초로 인터폴 총재로 선출된 데 대해 축하 메시지를 냈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인터폴 총재로 선출됐다"며 "아주 자랑스럽다. 국민들과 함께 축하를 보낸다"고 적은 바 있다.

뉴시스

## 박지원 "문제는 경제...점진적 추진해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의 궤도를 수정한 것을 지지하며 "문제는 경제다. 급진적 전환보다는 점진적 추진이 충격을 줄이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19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민시지탄이나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경제정책에 대한 자성과 전환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을 지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 홍영표 "이학재, 정보위원장에서 사퇴해야"

### "바른미래당이 맡는 게 상식"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이학재 의원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자유한국당에 복당한 것과 관련 "정보위원장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정보위원장은 바른미래당이 다시 맡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월 여야가 원구성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합의한 내용은 정보위원장은 바른미래당이 맡는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여야 합의정신"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의원은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와 품격을 지켜야한다. 자유한국당으로 옮기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정보위원장 자리를 복당 선물로 챙겨가겠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로서 도리가 아니다"라며 "한국당도 여야 합의 정신을 파기할 생각이 아니라면 이 의원이 스스로 물러날 수 있도록 분명한 입장을 취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 손학규 "정개특위 이상기류...심각하게 거취 생각"

### "원내 교섭단체 3당간 합의문에 적극 검토 명기"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제43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9일 "정개특위에서 이상기류가 발생하고 있어 단식을 중단해도 마음이 편치 않다"며 "심각하게 제 거취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에서 5당 협의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합의한 게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검토한다는 정도의 합의라거나, 우리나라에서는 연동형비례대표제

가 맞지 않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돌이킬 수 없는 확고한 원칙으로 합의돼야 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능하게 할 조건으로 최소한의 의원정수 증가, 의원정수의 탄력적인 운영이 보장돼야 단식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김관영 원내대표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에게 이를 확인하고 원내 교섭단체 3당간의 합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고 명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의문에)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상수가 돼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전제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한다는 대전제가 깔려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또 "의원정수와 관련해서는 원래 합의문 괄호 안에는 10% 이내 확보 등을 검토한다고 돼 있었는데 최종 서명 직전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확대로 확정하지 말고 확대여부를 검토한다고 표현을 누그러뜨려야 한국당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했다"며 "막판에 판을 깨는 게 싫어 그렇게 하지도 않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시대의 흐름에 자신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춧불혁명으로 망한 한국당이 춧불혁명의 다음 단계인 이번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자 하는 국민적 여망을 따라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국당이 지금 보수대통합을 말하고 있지만 보수대통합을 말하기 전에 수구로 돌아가지 말고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보수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